

AMERICAN STUDIES AM
AMERICAN STUDIES A
AMERICAN STUDIES
AMERICAN STUDIES

美国学論集

II

AMERICAN STUD
DIES AMERICAN STU
DIES AMERICAN ST
DIES AMERICAN S
DIES AMERICAN
DIES AMERICAN
DIES AMERICA

韓國아메리카学会

1970

AMERICAN STUDIES AMER
RICAN STUDIES AME
RICAN STUDIES AM

美國學論集Ⅱ.
한국아메리카학회.
1970.

現代 美國 戲曲에 나타난 家庭

—Edward Albee의 境遇—

李 根 三

Albee의 作中人物 Martha는 그녀의 술잔을 채워주고 있는 男便 George를 “He’s a good bartender...a good bar nurse. The S.O.B., he hates my father.”⁽¹⁾라고 손님들에게 紹介한다. Martha의 남편은 대학의 史學科 부교수다. 술에 취한 夫婦라고 하지만 이들 부부의 相互間의 호칭은 끔찍하다. 술잔을 흔들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을 부른다.

George: Monstre!

Martha: Cochon!

George: Bête!

Martha: Canaille!

George: Putain!⁽²⁾

중류층의 intellectual이라 佛語도 알고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어로 상대방을 부른다. 귀신, 돼지, 바보, 얼치기, 갈보라는 말이다.

여성의 社會的인 地位의 향상을 위해서 劇을 썼다는 Henrik Ibsen이나 여성은 우주의 曠목적인 사명을 지닌 絶對적인 存在라고 믿었던 Bernard Shaw가 Albee가 만든 여성의 모습을 보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Shaw가 여성에게 준 최대한의 臺詞란 Mrs. Hushabye의 “Oh, I say it matters very little which of you governs the country so long as we govern you”⁽³⁾ 정도의 subtle한 말이었다. 前記 Martha

1) Edward Albee: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Best American plays (1958-1963), Crown. New York 1963, p. 165

2) *ibid.*, p. 170

3) Bernard Shaw: *The Heart Break House*, Act 3.

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the Earth Mother”라고 부른다.⁴⁾ 그의 남편 George는 자기 面前에서 Martha가 젊은 生物學 선생과 간통하는 것을 보고도 말할 생각을 않는다.

Albee의 最近作 *A Delicate Balance*에서도 아내 Agnes는 남편에게 왜 자기의 동생 Claire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고 꼭 동정적인 질문을 한다. 자기의 여동생과 남편의 情事를 묵인하겠다는 말이다.⁵⁾ 美國의 戲曲文學史上 Albee가 그려놓은 男女關係, 특히 夫婦關係 처럼 grotesque한 場面은 없을 것이다. 그의 선배인 Eugene O'Neill은 사랑을 믿었고 Arthur Miller는 Family Integrity를 그의 作品의 主要題材로 삼았고 Tennessee Williams는 neurotic한 남녀를 登場시키면서도 사랑을 渴求하는 人間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Albee의 남녀, 특히 부부는 그의 선배의 그것과는 判異하다. Albee가 그리는 부부는 中流層에 속하고 大學教育까지 받은 사람들이다. R.H. Curry와 M. Porte가 *Drama Survey* vol.7에서 Albee의 作品은 다분히 作家 자신의 經驗이 無意識의으로 反映되었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한 作品은 또한 社會의 綜合的인 反射鏡 役割도 할 수 있는 것이다. Harold Clurman이 Albee의 劇을 automation과 mechanism에 지배되는 社會의 한 家庭을 그린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것이다.

本稿는 Albee의 比較的 後期作品에 속하는 *The American Dream,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그리고 *A Delicate Balance* 세 作品을 中心해서 그의 作品에 나타난 오늘날의 美國의 夫婦, 家庭의 변모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데 目的이 있다.

一次大戰을 前後해서 美國을 돌아본 영국인 George Birmingham은 美國의 가정을 꼭 羨望의인 눈으로 보았다.

“In the American house there are no ‘dens’. The American likes to feel that he is in direct personal contact with the members of his family and with his guest.”⁶⁾

그의 印象記의 첫 句節이다. 美國인의 結婚觀을 찬양한 De Tocqueville

4) Albee: *Who's... ibid.*, p. 189

5) Albee: *A Delicate Balance*. Antheneum, New York, 1967, p. 126

6) G. Birmingham: *The American at Home and His Club, America in Perspective*. ed. by H.S. Commager. Mentor Book, 1947, p. 247

는 “No country in the world where the tie of marriage is so much respected as in America, or where conjugal happiness is more highly or worthily appreciated.”라는 말까지 했다.⁽⁷⁾ 1880年代에 미국에 건너와 직접 미국의 여러 面을 見聞한 James Bryce는 미국의 夫婦와 歐羅巴의 夫婦를 비교해서 말하기를 구라파의 家庭主婦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꼭 기술적인 方法, 이를테면 남편에게 阿諛나 甘言으로 또는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야 하는데 美國의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봉사를 한다고 하였다.

“.....in America the husband's duty and desire is to gratify the wife and render to her those services which the English tyrant exacts from his consort.”⁽⁸⁾

이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Bryce는 간단한 episode를 foot-note로 내놓았다. 즉 영국의 남성은 부부가 외출할 때 key를 잃으면 부인을 3층 꼭대기까지 올려보내 갖고 오게 하는데 미국의 남편은 반대로 자기가 부인의 심부름을 한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bread-winner로서의 남편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나 미국의 여성은 많이 변했다. Henry Steele Commager가 “Twentieth-Century America, even more than nineteenth, seemed to be a woman's country.”⁽¹⁰⁾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여성은 커졌다. Commager는 미국의 여성들이 經濟界는 물론, 敎育界까지도 지배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미국 여성을 표현했다.

“Traditionally women had ruled the home, but only in America did they design it, built it, furnish it, direct its activities, and fix its standards...It was appropriate enough that an American, Lester Ward, should have propounded the theory of the natural superiority of the female sex which he called gynocracy, and American experience appeared to validate the theory.”⁽¹¹⁾

7) Arthur W. Calhoun: *Social History of the American Family* Vol. 3, Arthur H. Clark Co. 1919, p. 255

8) James Bryce: *Reflection on American Institutions*, Premier Americana, 1961, p. 153

9) Bryce: *ibid.*, p. 154

10) Henry Steele Commager: *The American Mind*, Yale Univ. Press, 1950, p. 424

11) *ibid.*, p. 424

즉 오늘날 미국 여성들의 비중이 클대로 커지고 모든 면에 獨立하여 女性優越論이 실재 증명될 경지에 있다는 것이다. Edward Albee의 戯曲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인생의 同伴者로서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命命을 주는 人物로 그려져 있다.

*The American Dream*에서는 幕이 열리자 아내(Mommy)가 남편(Daddy)을 command 하는 場面으로 시작된다.

Mommy: ...I went to buy a new hat yesterday. (Pause)

I said, I went to buy a new hat yesterday.

Daddy: Oh! Yes...yes.

Mommy: Pay attention.

Daddy: I am paying attention, Mommy.

Mommy: Well, be sure you do.

Daddy: Oh, I am.

Mommy: All right, Daddy; now listen.

Daddy: I'm listening, Mommy.

Mommy: You're sure!

Daddy: Yes...yes, I'm sure. I'm all ears.⁽¹²⁾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새벽 두시에 Party에서 돌아온 Martha는 男便 George에게 命命한다.

Martha: Make me a drink.

George: What?

Martha: I said, make me a drink.

George: (moving to the portable bar) Well, I don't suppose a nightcap'd kill either one of us...

Martha: A nightcap! Are you kidding? We've got guests.

George: (disbelieving) We've got what?

Martha: Guests. GUESTS.

George: GUESTS!...When?

Martha: NOW!

12) Albee: *The American Dream*, Coward Macann, Contemporary Drama, New York, 1961, pp. 12~13

George: Good Lord, Martha...do you know what time it...
Who's coming over?

Martha: What's-their-name.

George: Who?

Martha: WHAT'S-THEIR-NAME! ⁽¹³⁾

남편을 bartender 처럼 취급함은 물론, 손님을 불러도 남편과 相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아내의 권한은 대단하다. 그 손님들의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심지어는 사랑을 요구할 때도 아내는 命命한다.

Martha: C'mon over here and give your Mommy a big sloppy kiss.

George: ...oh, now...

Martha: I WANT A BIG SLOPPY KISS! ⁽¹⁴⁾

A Delicate Balance 에서도 Opening Scene 은 아내 Agnes 가 남편 Tobias로부터 술을 받아 들고 "Sit by me, hm?" 하고 자기 옆으로 부르는 場面으로부터 시작한다. (Broadway에서의 첫 公演 때는 이 場面을 보다 對照的으로 보이기 위해 Agnes 는 의자에, Tobias 는 그 옆 마루바닥에 앉게 하였다.) 그러나 아내 옆에 앉았던 Tobias 는 불편을 느껴 몸을 움직거린다. 그러자 아내 Agnes 는 남편에게 "Are you going to throw something at me? Your glass? My goodness..." 하고 꾸짖는다. Tobias 는 "I shall sit very quietly....." ⁽¹⁵⁾ 라고 대꾸할 뿐이다.

現代 美國男性의 特徵을 말하는 가운데 Margaret Mead 는 "aggressiveness"와 "boasting" 두 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 ⁽¹⁶⁾ Mead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ut of a series of conflicting traditions, out of the confusion which can be built in the male mind when females are those who urge his maleness insistently upon him, there has emerged a special American form of aggressiveness." ⁽¹⁷⁾

13) Albee: *Who's...ibid.*, p. 150

14) *ibid.*, p. 151

15) Albee: *A Delicate Balance*, cit. p. 7

16) Margaret Mead: *And Keep Your Powder Dry*, William Morrow & Co. pp. 151~152

17) *ibid.*, p. 152

즉 여성의 요청이 있을 때 美國式의 특수한 aggressiveness가 發動된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開拓時代에 있어서의 gallantry라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그러나 Albee의 前記 세 作品에 나오는 남성들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刺戟을 받지만 aggressiveness가 발동되는 方向이 male rogue가 아니라 여성들 자신이고 보면 복종과 無言으로 변하고 만다. Daddy나 Tobias, 그리고 George는 中流社會의 人物들이다. 安定된 美國의 經濟로 그들의 生活 自體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지만 직업에 있어서의 그들의 成功에 대해서는 絶望을 느끼고 있다. 이 사실이 그들을 沈黙과 順從의 길로 몰아 넣었는지 모른다. Mead는 말한다.

“But today for more Americans than in the past turn aside from the search for success. Feeling themselves demeaned as men when the jobs on which they have built their lives have been abolished, some men have turned aside in despair.”⁽¹⁸⁾

Albee의 男主人公들이 처해 있는 狀況이 Mead의 말로 首肯이 갈 수 있다. Mead는 미국 남성의 특징의 하나로 boasting이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나 최소한 Albee의 作品에 나타나는 남성에게는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여자 측에서 이 점을 더욱 발견할 수 있다.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에서 Martha는 남편 George와 손님들에게 “You are all flops. I am the Earth Mother, and you're all flops.”⁽¹⁹⁾라고 소리 지른다. 자기를 “the Earth Mother”라고 할 정도로 boasting을 한다.

Boasting에 그치지 않고 Albee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말에도 能하다. 能할 뿐만이 아니라 辱에 있어서도 남성을 壓倒한다. Martha는 자기 집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남편의 人品을 헐뜯는다.

“George is bogged down in the History Department. He's an old bog in the History Department, that's what George is. A bog... A fen....A god damn swamp. Ha, ha, ha, HA! A SWAMP! Hey, swamp! Hey swampy!”⁽²⁰⁾

Martha의 부친은 George가 근무하는 大學의 學長이다. Martha는

18) *ibid.* p. 281

19) Albee: *Who's... cit.* p. 189

20) *ibid.*, p. 159

자기 남편이 장차에는 歷史學科의 主任을 거쳐 父親의 代를 이어 大學 學長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George는 無能한 教授로 남아 있다. 이 사실을 Martha는 손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暴露하려고 한다.

“You want to know why the S.O.B. hates my father? You want me to tell you? All right...I will now tell you why the S.O.B. hates my father.”⁽²¹⁾

*The Delicate Balance*에 있어서도 아내 Agnes나 그의 여동생 Claire의 臺詞는 修辭學의 例文이 될 정도로 화려하다. 최근의 미국 여성들의 이러한 言語使用의 傾向에 대해 Morton M. Hunt는 다음과 같은 풀이를 하고 있다.

“...Woman's use of language to wheedle, cajole, and pester, with the aim of getting a more equal footing...She is superior in language abilities from babyhood on, and, in fact, verbal aggression is her favorite form...”⁽²²⁾

이러한 Hunt는 여자가 보다 능한 말로 남편을 대하려는 이유로 남편보다 “aggressive energies”를 社會에서 發揮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기회만 捕捉되면 內的으로 蓄積된 緊張을 마쳐 “explosive discharge of combat”인양 가정에서 폭발시킨다는 것이다.⁽²³⁾ 그러나 Albee의 作品 속의 아내의 cursing이나 cajole에 대해 남편의 태도는 꼭 消極的이다. George나 Tobias 또는 Daddy의 진지한 말은 아내가 아닌 第三者와의 對話를 통해 觀客이나 讀者에게 전달된다. 즉 Albee가 그리는 부부에게는 결혼생활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Intimacy를 발견할 수 없다. 남녀가 한 집에서 共存할 다른이다. *The Delicate Balance*에서는 남편 Tobias가 아내가 아닌 Claire에게 자기의 心中을 털어 놓는다. Claire는 Tobias의 過去의 情事까지 알게 된다.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에서도 主人公 George는 젊은 生物學교수 Nick에게 자기의 過去를 아내 Martha가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Albee의 home에는 夫婦間의 intimacy가 없으며 home은 한낱 street-number에 불과

21) *ibid.* p.

22) Morton M. Hunt: *Her Infinite Variety*, Harper and Row, 1962, p. 240

23) *ibid.*, p. 241

하다. *Delicate Balance*에서 Claire는 세번째 남편과離婚하고 되돌아온 Tobias의 36歲의 딸 Julia에게 말하기를 “Home is the quickest road to Reno I know of.”⁽²⁴⁾라고 한다. home이란離婚을 위한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것이다. 같은 作品에서 主人公 Tobias의 친구인 Harry와 Edna는 아무豫告 없이 한밤중에 Tobias를 찾아와 하룻밤 재워달라는 엉뚱한 부탁을 한다. 자기의 home을 버리고 찾아온 친구 夫婦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말하기를 “WE GOT...FRIGHTENED.” 또는 “We got scared.”라고 한다. “There was nothing...but we were very scared.”⁽²⁵⁾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친구 夫婦의 집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오랫동안 부부가 같이 살아온 home이 갑자기 무서워졌다는 것이다.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에서 보는 George와 Martha의 home도 사실은 battle ground의 印象이 支配的이다.

Albee의 세 作品에 나오는 舞臺는 特徵이나 個性이 없다. 즉 living room에 전혀 특징이 없다는 말이다. 세 場面이 모두 supermarket에서 파는 canned food 모양 差異가 없다. 人間味が 없다. 부부간의 intimacy가 없으며 home이라는 보다 親近的 氛圍氣를 찾아볼 수가 없다. David L. Cohn은 “Do American Men Like Women?”이라는 글에서 미국의 남성은 사실은 女性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흥미있는 말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의 남성은 開拓時代에 있어서는 女性의 數도 적었고 생활이 위험했으며 심지어는 勞動의 一部도 女性에게 依存하지 않을 수 없어 자연 女性을 대하는 態度가 공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女性의 數도 그렇고 生活方式이나 勞動面에 있어서도 아내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they placed woman on a pedestal because they did not know what else to do with her. She was not wanted at a man's side. She was not desired as a companion in intimacy. She could be taken down and put back without disturbing the essential pattern of man's life, and, at the same time, standing on a pedestal she gives

24) Albee: *A Delicate...* cit. p. 72

25) *ibid.*, p. 46

the satisfying appearance of a household goddess.”⁽²⁶⁾

이러한 부부생활 즉, intimacy와 understanding이 없는 생활은 왕왕 divorce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Albee의 作品 속의 부부는 이혼을 해도 결국 Cohn의 말처럼 “Putting apart of something that had never been joined”⁽²⁷⁾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이혼을 하고 두번째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the triumph of hope over experience”라고 한 D.R. Johnson의 말이 Albee의 부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혼을 해보았자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는 새로운 希望이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A Delicate Balance*에서 主人公 Tobias의 딸 Julia는 나이가 설혼 여섯인데 세번째 이혼을 하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Julia의 행동이며 言辭는 處女時代의 그것과 하나도 差異가 없다. 苦惱며 經驗에 의한 자기 나름의 哲學이 전혀 없다. 자기의 방을 내달라고 권총을 휘두르는 farce scene을 자아내는 것이 고작이다. 세번째 破鏡 끝에 돌아오는 Julia에게 동정을 하는 사람도 없다. Claire는 “...and here comes Julia, home from the wars, four purple hearts...”⁽²⁸⁾라고 비꼬며 Julia가 마치 戰爭터에서 勳章을 달고 돌아오는 것처럼 肉살을 부린다. 같은 作品에서 女主人公 Agnes는 남편과 딸에게 이야기를 던진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말에 注意를 돌리지 않는다. 意思疎通이 不可能해진 家族이다. Agnes는 중얼거린다. 이런 경우에 보통 부부라면 할 수 있는 말이다.

“I think I shall have a divorce.”⁽²⁹⁾

이 말에도 상대방은 무관심하다. 잠시 후 Tobias가 묻는다. “Have what? A what?” 그러나 Agnes는 재빨리 자기의 말에 註釋을 붙인다. Intimacy 또는 understanding이 없으면 이혼하는 것이 常識化되어 있는 미국의 보통 부부와는 다르다. divorce라는 말을 장난삼아 던질 따름이다. Agnes는 말한다.

Agnes: No fear; merely testing. Everything is taken for granted and no one listens.”

26) David L. Cohn: *Do American Men Like Women?* Atlantic Essay, D.C. Heath & Co. 1958, p. 255

27) *ibid.*, p. 253

28) *A Delicate...* cit. p. 71

29) *ibid.*, p. 82

Tobias: Have a divorce?

Agnes: No, No;...not even separation.”⁽³⁰⁾

Agnes는 이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거의 誦念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We become allegorical, my darling Tobias, as we grow older. The individuality we hold so dearly sinks into crotchet; we see ourselves repeated by those we bring into it all, either by mirror or rejection, honor or fault...(to herself, really) ...I'm not a fool; I'm really not.”⁽³¹⁾

佛蘭西人 Raoul de Roussy de Sales는 美國人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혼이 빈번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When for some reason or other, love fails to keep you uplifted, wholesome, and fresh, the only thing to do is to begin all over again with another partner.”⁽³²⁾

즉 사랑이 希望의이 아니요 完전치 못하면 다른 相對를 선택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lbee의 作中人物들에게는 이러한 de Sales의 말하고는 관계가 멀다.

Albee의 부부는 그들의 연령 특히 늙어간다는 사실에 대해 不安感を 갖고 있다. Morton Hunt는 미국인의 늙은 狀態를 “The Yellow Leaf”⁽³³⁾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Albee의 부부는 이 the yellow leaf 狀態로 接近되는 자기의 모습에 서러움을 느낀다. 老後子女의 保護를 못받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The American Dream*에 역력히 나타나 있다. 이 作品은 늙은 Grandma를 養老院으로 내쫓는 사건으로 부터 시작된다. 부부간에 특히 age-conscious한 側은 生理上 남편 쪽이 더 심하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 덜 늙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快感마저 느낀다.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에서 George는 Nick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30) *ibid.*, p. 82

31) *ibid.*, p. 82

32) Raoul de Roussy de Sales: *Love in America, America in Perspective*, ed. by H.S. Commager, Mentor Book, 1947, p. 282

33) M.M. Hunt: *cit.* p. 65

“(after a sympathetic pause) The saddest thing about men... well, no, one of the saddest things about men is the way they age...”⁽³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아내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에 찬 말을 한다. They don't change...they don't grow old.”⁽³⁵⁾

A Delicate Balance 에서도 부부는 이와 흡사한 對話를 주고 받는다. Tobias: I'm not as young as either of us once was.

Agnes: I'm as young as the day I married you—though I'm certain I don't look it—because you're a very good husband—most of the time.”⁽³⁶⁾

Agnes 역시 남편보다는 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Albee의 부부들은 자기네 面前에서 이루어지는 adultery에 대해서도 거의 무관심한 態度를 취한다. George가 잠간 방을 빈 틈에 Martha는 젊은 손님 Nick를 유혹한다. George가 돌아오자 두 남녀는 껴안고 있다. 그러나 George는 아무 말 없이 도로 방 밖으로 나가 오히려 姦通의 기회를 준다. 微笑를 띄고 소리없이 웃기까지 한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George에게 Martha는 Nick와 관계를 맺겠다는 말을 한다. “We're going to amuse ourselves, George.”⁽³⁷⁾ 그러나 George는 거리낄 없이 대꾸한다.

“George: (never looking up) No, no, now...you go right ahead ...you entertain your guest.”⁽³⁸⁾

결국 Martha와 Nick는 2층으로 올라간다. *A Delicate Balance*에서도 아내 Agnes는 남편 Tobias에게 자기의 동생 Claire와의 情事를 묵인하겠다는 듯한 말을 한다.

Agnes: Did you go to Claire?

Tobias: I never go to Claire.

Agnes: Did you go to Claire to talk?

34) Albee: “Who's Afraid... cit. p. 170

35) *ibid.*, p. 170

36) “A Delicate...”*cit.* p. 6

37) *Who's Afraid... cit.* p. 185

38) *ibid.*, p. 185

Tobias; I never go to Claire.”⁽³⁹⁾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言行이다. *Tiny Alice* 에서 Butler 가 主人公 Julian 에게 “Marriage is a confusing business.”⁽⁴⁰⁾ 라고 하는데 이는 Albee 의 부부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말일는지 모른다.

Albee 의 부부와 술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幕이 열리고 끝날 때까지 부부들은 물론 guest 들은 술잔을 들고 있다. Living room 한 구석에 있는 bar 는 family member 의 정신적인 支柱 비슷한 역할을 한다. 왕왕 술은 現實逃避의 구실을 한다. 그러나 Albee 의 劇에 있어서는 술은 단순한 現實逃避의 役割에 그치지 않고 두 人間을 맺어 주는 connection 역할을 한다. 즉 媒介體 구실을 한다. 疎外된 관계에 있던 부부가 술을 통해 共同關心事를 찾고자 한다. 그렇지만 Albee 의 부부들은 現實을 直面하는 人物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關心事로 돌아간다. George 가 말한다.

“It’s very simple...When people can’t abide things as they are, when they can’t abide the present, they do one of two things...either they...either they turn to a contemplation of the past, as I have done, or they set about to...alter the future.”⁽⁴¹⁾

現實을 直視할 것을 외면하는 Albee 의 부부는 술을 통해 과거를 연상한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는 敗北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과거의 幻想, 양쪽이 접근될 수 있는 幻想 속에 들어간다. Tobias 와 Agnes 는 옛날에 죽은 아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으면 하는 과거로, George 와 Martha 는 두 사람 사이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즉, 있지도 않은 幻想 속의 아들을 그린다.

Martha 는 그들 부부 사이에 아들이 있으며 아들이 금년 21歲라는 幻想 속에 사로잡혀 있다. George 도 아내의 이와 같은 幻想을 깨뜨릴 생각은 없다. 이들은 現實과 幻想을 混沌함으로써 상대방과의 connection 을 피하려 한다. 怒한 Martha 가 George 한테 “Truth and illusion, George; you don’t know the difference.”⁽⁴²⁾ 라고 꼬집자 George 는 대꾸한다. “No; but we must carry on as though we did.”⁽⁴³⁾

39) *A Delicate... cit.* p. 126

40) Albee: *Tiny Alice*, Atheneum, ed. 1965, p. 129

41) *Who’s Afraid...cit.* p. 187

42) *ibid.*, p. 192

43) *ibid.*, p. 192

Albee의 부부들에게는 꿈이 없다. Albee는 자기의 劇中人物을 통해 美國 中流社會 人物들의 꿈의 喪失狀態를 말하려고 한다. *The American Dream*이 그 좋은 예가 된다. 幕이 열리자 典型的인 美國中流層의 응접실에서 부부인 Daddy와 Mommy가 마주 앉아 있다. Daddy는 Mommy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Mommy는 바쁘게 지거리지만 아무 意味도 없는 말이다. 한참 있다가 Mrs. Baker가 들어온다. 부부는 Mrs. Baker라는 “professional woman”의 出現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나타나자 왜 기다렸는지 모른다. Mrs. Baker 역시 자기의 방문의 뜻을 잊고 있다. 여기에 86歲나 된 Mommy의 親 Grandma까지 곁들여 狀況이 더욱 복잡해진다. Grandma는 곧 양로원으로 끌려갈 차비를 하고 있다. Grandma는 이 劇에서 anachronism의 symbol 같은 구실을 한다. 그러나 社會가 腐敗하지만 않았더라면 *The American Dream*이 이 老婆를 통해 실현되었을지도 모를 본래는 開拓時代의 典型的인 mother-image이기도 하다. Grandma는 Mrs. Baker에게 옛날 이집에 養子를 소개한 일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Mrs. Baker가 소개한 양자는 부부에게 실망을 주었을 뿐이었다. 부부는 양자의 눈알을 도려내고 손을 끊고 혀를 빼버리고 男根을 除去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양자는 죽어갔으며 부부는 Mrs. Baker에게 돈을 돌려 주던가 보다 만족할 만한 양자를 얻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Mrs. Baker를 불렀다는 사실을 회상하게 된다. 바로 이때 “All-American boy”가 登場한다. 큰 몸집, 筋肉이 거창한 몸, 요컨대 好男型의 청년이다. 그러나 腦는 텅비어 있으며 돈만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거들 강조한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다. 자기에게는 쌍둥이의 兄이 있었지만 이미 헤어진지 오래라는 것이다. 물론 Albee는 行方不明이 된 이 쌍둥이의 兄을 통해 希望과 善을 나타내지만 이런 것은 이미 미국의 생활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청년은 말한다.

“I cannot touch another person and feel love...I have no emotions. I have been drained, torn asunder...disemboweled. I have now only my person...my body, my face...And it will always be thus.”⁽⁴⁴⁾

44) *The American Dream*, cit. p. 78

이것은 Albee가 보는 美國社會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Grandma 뿐이다. 옛날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노파는 Albee가 생각하는 “Great American Earth Mother”⁽⁴⁵⁾인 것이다. 人類에게 新世界의 dream을 안아주게 한 人物이라는 것이다. 開拓時代의 참다운 人物이다. 노파는 청년에게 말한다.

“I don't know you from somewhere, but I knew...once...someone very much like you...or, very much as perhaps you were... Someone...to be more precise...who might have turned out to be very much like you might have turned out to be.”⁽⁴⁶⁾

Grandma는 Mrs. Baker에게 이 청년을 양자로 주라고 말하고 집을 나간다. 부부는 이 缺點 투성이인 청년을 그들의 dream으로 알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Albee가 그리는 美國 中流社會의, 그리고 家庭의 꿈인 것이다. 물론 꿈이 아니라 James Baldwin이 지적하듯이 “nightmare”⁽⁴⁷⁾에 불과한 것이지만.

*The American Dream*에서 Daddy와 Mommy하고 같이 살게 될 청년은 이미 미국의 flawed dream이며 그 장래는 극히 悲觀的이다. *A Delicate Balance*에서 부부는 옛날에 죽은 아들에 대해 愛着을 느낀다.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에서는 부부가 存在해 본 적도 없는 imaginary son의 歸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希望的인 dream이 아니요 한낱 illusion에 불과한 것이다. Albee의 處女作品인 *The Zoo Story*에 나오는 主人公 Jerry와는 對照的인 人物들이다. Jerry는 獨身이요 따라서 가족도 없다. 무엇보다 그는 젊다. 다만 Jerry와 이미 言及한 세 作品에 나오는 夫婦들 사이에 共通點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疎外感을 느끼고 있다는 點이다. 부부들은 술을 마심으로써 이 疎外感 자체를 의면하려고 한다. 술을 마시며 그들은 dream이 있음을 느끼려고 한다. 부부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것은 이 dream이 共通하다는 사실 뿐이다. 그러나 이 dream은 결국

45) George E. Wellworth: *The Theatre of Protest and Paradox*, N.Y. Univ. Press, 1965, p. 282

46) *The American Dream*, cit. p. 79

47) James Baldwin: *Theater: The Negro In and Out*, ed. by John Williams, New York, Lancer Book, 1962, p. 79

illusion에 불과하다. *The Zoo Story*의主人公 Jerry는 reality를 直面할 만한勇氣가 있었다. 그는 現實과 부딪쳐 보고 疎外意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죽음을 擇한다. 그러나 세 作品에 나오는 부부들은 술을 마시며 現實에서 逃避하고 illusion속에서 부부간의 어떤 共通點을 찾고자 한다. 부부들의 나이는 40이 넘어 있다. De Sales의 말테르 나 이 40에 새 現實에 스스로를 適應시키고자 하는 자체가 farcical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⁴⁸⁾ 이들은 現實에의 適應마저 포기하고 다만 illusion에 파묻히고자 한다.

Edward Albee의 前記 세 作品에 나오는 여성들은 최소한 여태껏 미국의 남성들이 그리던 romantic한 存在가 아니다. "Blue-eyed Helen" 또는 remote, inaccessible and therefore maddeningly desirable⁽⁴⁹⁾한 存在가 아니라 명령을 하고 role of masculinity를 행사하려 하는 人物로 나타나 있다. Albee의 여성들은 또한 Earth-mother임을 자부한다. 그러나 愛情과勇氣를 주고 모든 것을 包括할 수 있는 開拓時代의 mother image가 아니다. Strindberg의 여성들처럼 남편을 憎惡하고 죽음에 몰아넣지는 않았지만 멀리하고 명령하며 술잔을 흔들고 있다.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a good man" 밖에 못되며 "本質的으로서는 아내에게 무관심하다."⁽⁵⁰⁾ George는 "The way to a man's heart is through his wife's belly."⁽⁵¹⁾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 格下하며 스스로를 비꼰다.

그렇다면 Albee가 보는 오늘날의 美國 中流層의 家庭은 作品의 表面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絶望的인 것일까. 一面 Albee의 부부는 꽤 negative한 것 같으면서도 社會의 한 單位인 家庭을 維持하기 위해 비상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젊은 生物學教授 Nick와 adultery를 범하고 나온 Martha의 台詞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Martha는 텅빈 방에 나와 觀客에게 처음으로 그의 本心을 이야기한다.

"I cry all the time too, Daddy. I cry all the time; but deep inside, so no one can see me. I cry all the time. And George cries all the time, and then, what we do, we cry, and we take our tears,

48) Raoul de Sales, *cit.* p. 289

49) David L. Cohn, *cit.* p. 257

50) *ibid.*, p. 257

51) *Who's Afraid...cit.* p. 173

and we put 'em in the ice box, in the goddamn ice trays until they're all frozen and then...we put them...in our...drinks.”⁽⁵²⁾

남편과 경멸에 찬 對話를 주고 받던 Martha가 속으로는 울고 있으며 남편 역시 울고 있을 거라는 말을 한다. 그들의 飲酒는 台詞의 말처럼 결국 눈물을 마시는 것처럼 괴로운런지 모른다. 이어 Nick에게 남편 George에 대한 말을 한다.

“...George who is out somewhere there in the dark...George who is good to me, and whom I revile; who understands me, and whom I push off; who can make me laugh, and I choke it back in my throat; who can hold me, at night, so that its warm, and whom I will bite so there's blood; who keeps learning the games we play as quickly as I can change the rules; who can make me happy and I do not wish to happy, and yes I do wish to be happy. George and Martha: sad, sad, sad.”⁽⁵³⁾

Adultery를 범하고 나온 Martha의 입에서 이런 남편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슬픈 狀況을 赤裸裸하게 알려주는 台詞가 낯선 觀客에게는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劇的인 效果도 대단하다. George가 자기를 위해 그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이 처해있는 狀況, 즉 科長 좀 더 나아가 學長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喪失한 부부의 슬픈 狀況 속에서 서로를 헐뜯고 있는 부부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M.M. Hunt는 美國 中流層의 教育을 받은 여성이 adultery를 범하는 이유로 性的으로 不安한 남편을 가졌을 때 “a sophisticated and aesthetic set of feeling”⁽⁵⁴⁾을 다른 남성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스스로를 合理化시키기 위해서이며 또 한가지 이유로서는 남편에 대해 hostility나 ambivalence를 느낄 때 不義를 범함으로써 남편에 대해 優越感을 느끼려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⁵⁵⁾ Martha의 경우 이 두가지 이유가 다 작용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Martha가 사랑을 요

52) *ibid.*, p. 188

53) *ibid.*, p. 190

54) M.M. Hunt, *cit.* p. 133

55) *ibid.*, p. 135

구할 때마다 George는 적당한 구실로 피해 왔었다.⁵⁶⁾ 그러나 Martha는 남편 面前에서 그러한 不義를 범하고 난 後 Hunt가 지적한 것 같은 sophisticated하고 aesthetic한 느낌을 가진 것도 아니요 남편에 대해 優越感을 느낀 것도 아니다. 오직 경험한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의 울음과 슬픔 그리고 남편의 자기에 대한 無限한 忍耐였다. Diana Trilling은 現代 美國 文學作品에 나오는 女人像이 남성과의 同等線을 이미 넘어 그처럼 강력해졌기 때문에 남성의 최후의 목적이며 尊嚴性까지 박탈하고 性的으로는 늘 굶주려 있으며 性慾을 제하면 모든 面에서 빈 껍질에 불과한 無意味하고 귀찮은 것으로 그려져 있다고 말했다.⁵⁷⁾ 남성은 이러한 存在와 共存할 때 자연 아내를 抽象的 存在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⁵⁸⁾ 사실 Martha나 그녀의 Albee의 作品에 나오는 여인들은 Diana Trilling이 말한 類型처럼 보인다. 그러나 Martha는 表面上의 행동은 어떻든지 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George와의 거의 宿命的인 tie를 의식하고 있으며 자기의 엉뚱한 要求에도 응해주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남편의 忍耐心을 알뜰히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의 關係를 破棄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세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온 딸이 자기더러 “drill sergeant”⁵⁹⁾ 처럼 잔소리가 많다고 대들자 *A Delicate Balance*의 主人公 Agnes는 이렇게 말한다.

“To keep in shape.” Have you heard the expression? Most people misunderstand it, assume it means alteration, when it does not. Maintenance. When we keep something in shape, we maintain its shape—whether we are proud of that shape, or not, is another matter—we keep it from falling apart. We do not attempt the impossible. We maintain. We hold.⁶⁰⁾

이미 病든 霧圍氣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며 지내고 illusion 속에 파묻히고 각자 疎外된 상태에 있는 家庭이지만 Agnes는 이 家庭을 “falling apart”되는 상태로부터 “maintain”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

56) “Who’s Afraid”...cit. p. 151

57) Diana Trilling: *The Image of Women in Contemporary Literature*, The Woman in America, ed. by Robert J. Lifton, Houghton Mifflin Co. Boston, 1965, p. 63

58) *ibid.*, p. 64

59) *A Delicate Balance*, cit. p. 80

60) *ibid.*, p. 80

고 있다. 이어 Agnes 는 남편 Tobias 에게도 말한다.

“There is a balance to be maintained, after all...”⁽⁶¹⁾

한 家庭이 제아무리 混沌 속에 놓여 있지만 마지막 破綻은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balance 를 維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 balance 가 title 이 말하듯 꽤 delicate 한 balance 이기는 하지만.

Alice Rossi 는 美國 中流層의 教育을 받은 家庭主婦들이 처해있는 問題의 하나가 社會에서의 男女同等權의 認定에도 불구하고 오래 家庭의 일에만 專念하다 보면 社會와는 遊離되기 마련이어서 그의 社會의 地位 자체에 대해 不安을 느낀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런 경우 中流層의 家庭主婦들은 여러 分野에서 volunteer worker 로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結婚前에 organization worker 로서의 教育과 訓練을 못 받은 주부는 그들의 社會進出에 대한 慾望이 充足될 가망이 없기 때문에 특히 40이라는 나이가 된 다음부터는 獨立的인 自己充足心의 實現性이 稀薄해져 不安을 느끼게 될 憂慮가 있다고 했다.⁽⁶²⁾ 사실 Albee 의 세 中流層 主婦들, 즉 Mommy 나 Agnes, Martha 는 이러한 類型의 여성들이다. 그들은 社會進出에 대한 길이 막힌데 대한 不滿을 가정에서 陰性的으로 發散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grotesque 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이라는 한 單位의 破壞와 喪失을 막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꽤 消極的인 것이기는 하지만. Commager 의 말대로 미국의 moral practice 는 달라졌지만 그러나 popular moral standard 에는 아직도 큰 變化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⁶³⁾

Albee 의 남편들은 과거 開拓時代의 그들의 image 를 喪失한 꽤 무능력하고 매사에 무관심한 negative 한 存在로 나타나 있음은 이미 指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行動에도 限界點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아내의 편찬을 받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며 술을 통해 現實을 避하려는 남편들이지만 그들의 忍耐의 限界를 넘을 때 또는 家庭이라는 것이 완전히 破壞될 版局에 이르러서는 그들도 이를 막고 維持하기 위해 行動을 한다는 말이다. Daddy 나 Tobias 그리고 George 가 어찌서 그

61) *ibid.*, p. 81

62) Alice S. Rossi: *Equality Between Sexes*, The Woman in America, *cit.* p. 118

63) H. Steele Commager: *The American Mind*, *cit.* p. 425

들의 business career에서 실패하였는가 하는 구체적인言及은 劇中에 없다. 그러나 Harold Clurman이 지적하듯이 이 세 人物은 根本적으로 “nonconformist”⁽⁶⁴⁾다. 이 사실이 그들을 世俗의인 意味의 出世의 路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nonconformist가 할 수 있는 路은 앞서 例로 내놓은 George의 말처럼 과거나 생각하든가 reality와 illusion을 混沌해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limit는 있는 것이다. 다음의 George와 Martha의 激突의인 臺詞를 통해 우리는 George가 忍耐의 限界線에서 行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를 찾아볼 수 있다.

Martha: You're really a bastard.

George: I? I?

Martha: Yeah...you.

.....

Martha: My arm has gotten tired whipping you.

George: (*stares at her in disbelief*) You're mad.

Martha: For twenty-three years!

George: You're deluded...Martha, you're deluded.

Martha: IT'S NOT WHAT I'VE WANTED!

George: I thought at least you were...on to yourself. I don't know. I...didn't know.

Martha: (*anger taking over*) I'm on to myself.

George: (*as if she were some sort of bug*)

No...no...you're...sick.

Martha: (*rises—screams*) I'll show you who's sick!

George: All right, Martha, you're going too far.

.....

Martha: I'll show you who's sick. Boy, you're really having a field day, hum? Well, I'm going to finish you...before I'm through with you...⁽⁶⁵⁾

이 이상 가면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으로 끝날 것은 분명하다.

64) Harold Clurman: *The Naked Image*, The Macmillan Co. New York, 1966, p. 18

65) *Who's Afraid...cit.* pp. 181-182

뿐만이 아니라 George 자신의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堡壘마저 무너질 것도 분명하다. George는 行動을 한다. 그들 부부가 늘 하던 game을 통해 무자비하게 Martha를 幻想世界로부터 냉정한 現實世界로 내 몬다. 미국 가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game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이러한 game 자체에는 특수한 機能이 있다. Eric Berne은 game의 숨은 機能을 다음 다섯가지로 나눈다. 1. Rituals 2. Pastimes 3. Games 4. Intimacy 5. Activity.⁽⁶⁶⁾ Hunt는 한걸음 더 나아가,

“Games and gamelike activities, for example, are one of the safe forms of outlet for competitive or aggressive drives not disposed of elsewhere.”⁽⁶⁷⁾

George는 이 game을 통해 Martha의 幻想的인 아들을 살해해 버린다. 幻想的인 아들은 부부들만의 비밀이었으나 Martha는 第三者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즉 부부간의 rule을 파괴한 데 대한 냉혹한 벌이기도 했다. 幻想을 붙들고 살던 Martha에게는 幻想의 除去는 死刑宣告와도 같다. Martha는 울면서 George에게 依支한다. 손님이 돌아간 후 두 남녀는 오랫동안 부부로 돌아간다. 愛情마저 보인다. George는 Martha를 慰安한다. 家庭의 파괴를 마지막 선에서 막은 George는 묻는다.

George: Do you want anything, Martha?

Martha: No...nothing.

George: All right. Time for bed.

Martha: Yes.

George: Are you tired?

Martha: Yes.

George: Sunday tomorrow; all day.⁽⁶⁸⁾

다시 함께 내일을 맞이해 보자는 말을 한 뒤 George는 Martha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노래를 하는 데서 이 劇은 끝난다. Harold Lamport는 이 場面을 이렇게 말한다.

“Slowly it becomes apparent that along with their headlong hate

66) Joy Flasch: *Game People Play in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Modern Drama vol. X. 1967, p. 280

67) M.M. Hunt: p. 246

68) *Who's Afraid...cit.* p. 200

there is also love. Why else are they still together? They understand and appreciate one another even though each is a tortured person.”⁶⁹⁾

*A Delicate Balance*의 終幕에서도 Agnes는 家族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What I find most astonishing, I think, is the wonder of daylight, of the sun....And when the daylight comes again...Comes order with it....Come now; we can begin the day.”⁷⁰⁾

이것이 幕이 내리기 직전의 臺詞다. 뚜렷한 目的이나 約束은 없지만 그래도 내일을 기다리자는 거의 諦念과 비슷한 Agnes의 態度다.

이러한 事實로 보아 Albee의 作品에 登場하는 부부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狀況은 無秩序하고 混濁하며 각자가 幻想에서 살고 있고 過去의 美國의 남녀에게 주어졌던 모든 屬性이 조각이 나있으며 한편 이들은 急變하는 automatic하고 mechanical한 美國社會와의 妥協을 外面한 nonconformist로서, 形式上的 부부로 共存하고 있음을 안다. Albee는 오늘날의 美國 中流家庭의 危機를 辛辣하게 批判한다. 그러나 絶望의인 것은 아니라는 暗示를 잊지 않는다. Albee의 부부들은 自暴自棄와 諦念의 差異를 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良識이 있음을 Albee는 말하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젊은 英國의 劇作家들이 그려내는 家庭이나 夫婦像과의 差異點이기도 하다.⁷¹⁾ 내일의 期待나 約束은 없으면서도 „tomorrow” 또는 “dawn”을 위해 現在의 狀態나마 維持하지 않을 수 없는 諦念이 Albee가 그려내는 미국의 中流層 家庭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Albee의 人物들은 사랑과 理解가 表面에서 사라졌고, 각자 疎外感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形式上的 關係나마 이끌어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거의 宿命的인 오늘날의 부부의 모습이기도 하다.

<西江大學校 教授>

69) Harold Lamport: Post誌 1962年 11月 4日에 “We must try to claw our way into compassion”이라는 title로 Jerry Tallmer와의 interview 記事로 실렸음. J. Gassner의 *The Best American Plays* (1958-1963)中 p. 147

70) *A Delicate...cit.* p. 170

71) Harold Pinter의 *The Homecoming* 參照.

ABSTRACT

Modern American Family Reflected in Edward Albee's Plays

Keun-sam Lee

De Tocqueville once made a remark on marriage in America: "No country in the world where the tie of marriage is so much respected as in America, or where conjugal happiness is more highly or worthily appreciated." James Bryce praised American husband as follows:

"...in America the husband's duty and desire is to gratify the wife and render to her those services which the English tyrant exacts from his consort."

In spite of these observations by the eminent Europeans, man and wife in American family reflected in Albee's works seem to live aloof and alienated from their home life. Albee shows us a middle-class family comparatively well off. Man and wife are well educated and hold somewhat secure positions in their professional field.

From the outset of the plays the couple hold a glass in their hands and curse at each other. In most cases the husband gives in. Their cursing is unbelievably dirty. As usual the woman dominates the scene. After the husband lets his wife commit adultery with his friend, and the wife suggests the husband go into her sister's room.

Through drinking habits they indulge themselves in impossible illusion. Their home is nothing but a street-number. There is no intimacy between them. They know that "Home is the quickest road to Reno." Unlike in the frontier age, the woman is not "Blue-eyed Helen, remote, inaccessible and therefore maddeningly

desirable.”

Margaret Mead saw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male as boasting and aggressiveness. However, men in Albee's works lost the admirable character long time ago. As one character says in *Tiny Alice*, “Marriage is a confusing business.” Everything, so far as their relations are concerned, looks negative. And yet they pay a great deal of effort to maintain and keep their home from falling apart. The wife in *A Delicate Balance* says: “When we keep something in shape, we maintain its shape—whether we are proud of that shape, or not, is another matter—we keep it from falling apart. we do not attempt the impossible. We maintain. We hold.”

When the wife in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is about to break the final border line of their tie, the husband steps in through their acquiescent game of torture and secures the tie and awakes the wife's nightmare. At the end they wait for “tomorrow” and “dawn” which are unlikely to come.

The husband and the wife are in a sense defeated persons in a competitive world. They were downed because they are nonconformists and the victims of automatic and mechanical society.

<Professor, Sogang University>